

주거공간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lexibility of the Residential Space

박경애*/ Park, Kyung-Ae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spacial flexibility of house. In the recent days, it is true that the qualitative aspect of residence rather than the quantitative one has emphasized. But the inhabitants of residence undergo adaptation problems to deal with changing needs constantly.

Residence must be the place to satisfy inhabitant's desire to live and dwell. According to changes in family life cycle and personal demand, the flexibility in housing should be beneficial.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relationships of these need

changes and inhabitant's adaptation through the spatial flexibility. Throughout the process of main discourse,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of housing are applied. And to introduce the flexibility of residential space, concepts of flexibility according to 'time' and 'spatial structure' are employed.

In addition to functionality and comfort, living should provide a touch of humanity attuned to individual sensi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can move interior structure by the flexible planning.

키워드 : 가변성, 공간구조, 주거문화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인간의 기본적 요구란 시대와 사회와 기술이 바뀌어도 그 형식만이 바뀔 뿐 그 바탕을 이루는 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면면하게 이어진다. 따라서 주택혁신의 착안은 어떻게 그 맥을 짚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질 수 있게 하느냐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거주환경은 극히 가혹한 제약하에서 조건지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면적과 용적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발상의 빈곤함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있다.

20세기를 통하여 실용성, 표준화의 가치를 표방하고 주거에 대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주창한 천편일률적인 집합주택형식은 주거가 단지 생활을 위한 장소나 생존을 위한 초보적인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택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본래의 가치들을 저버린 형식으로 결론지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부족을 감소를 우선으로 하는 편의성 위주의 주택정책이 낳은 결과라 볼 수 있는데 이들 주택방식은 인간의 주거방식 중에서 극히 한정된 측면만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양화된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주거형식에 고정된다면, 그것은 주거행위에 대한 기본인식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현재 주택보급율이 80%이상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생활양식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¹⁾ 주호평면의 획일화 고정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주거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주택의 다양성에 대한 시도가 미래의 새로운 주거제안과 주거방법의 제창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인간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주거형식을 전제로 한 실내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평면의 고정화 문제를 지적하고 가족의 성장,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가변성'이라는 주제로 근미래를 향한 주거방식의 하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첫째, 주거의 의미와 주거조절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주거환경설계에 있어서의 연구와 실천으로 유도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둘째, 주거의 경험을 이해시킬 수 있는 디자인 패턴과 지침의 적용 및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평면형과 융통성 있는 내부구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주거조절의 요인을 가족생활 주기에 의한 요인과 개인의 욕구충족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알아본다.

* 정회원,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시간강사

1) 김혜정, 가족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성향에 관한 연구, p. 27

셋째, 주거공간의 가변구조를 환경디자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시간적 공간적 유형에서 찾아보고 가변주택의 실례를 시간적 구분사용과 공간적 구분사용으로 분류하여, 스티븐 홀의 힌지드 스페이스에 의한 가변성과 칸막이의 조절에 의한 가변성, 그리고 가구의 이동에 의한 가변형으로 각각 그 예를 들어 가변주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거관 형성은 그 사회의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내적규범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관은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고, 이는 새로운 건축환경구성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주거문화에 대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으로서 주거조절을 위한 공간의 가변성이라는 현실적 해결이며, 주택을 통해 접근시키는 본질적 테마로서 환경디자인의 연구와 실천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거의 의미와 주거조절

2-1. 주거수준과 주거규범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화 운동은 도시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에 수출되었으며 제3세계에도 전파되었다. 건축에서의 근대화의 꿈은 산업화된 주택이 어느 누구에게나 양질로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주택은 보편적인 요구이며 기술의 일부로서 '살기 위한 기계'로 인식되었다.

주택은 생필품으로 간주되었고 디자인에 있어서 사용자의 통제를 거의 제거함으로써 개인적 정체성의 마비를 참고 견디게 하였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계획과 과정은 주택과 주거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가 지닌 무형의 의미를 무시한 결과의 가장 극단적인 예로서 이는 결국 '주택문제'는 해결했지만 주거상실을 빚게 한 원인이 되었다.²⁾

주택이란 역사적, 문화 인류학적으로 문화를 표현해주는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주택은 누가 어떻게 사는가를 전달해주는 물리적 실체로서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은 하나의 사물이고 환경의 일부이지만, 주거는 사람과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 사이의 일종의 관계로서 인지된다. 주택은 주거경험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반면, 주거는 금전적인 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시간이나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꿈과 희망과 보호를 투자하는 곳이다. 주거는 인간과 장소를 연결시키고, 거주경험과 그것이 발생된 더 넓은 공간적, 시간적, 사회문화적인 내용들과의 총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통합된 구조이다.³⁾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거공간은 모든 단계에 적당한 기능과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거규범」은 주거의 질을 중심으로 한 상태, 또는 거주 상태를 일정한 지표로 다루어, 어떤 사회그룹의 평균적인 수치라든가, 정도

를 포괄할 때 잘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에 비해 「주거선호」는 희망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주거만족도의 수준은 '충족된 상태에서부터 결핍된 상태까지 걸쳐서 그 범위를 나타내는 희망도(aspiration)와 성취도(achievement)와의 지각된 차이'로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⁴⁾

2-2. 주거공간 개조요구와 주거조절

Piaget는 개인과 환경과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인간의 행위과정이 전체로 통합되는 것을 동화와 조절의 조합으로 설명한다. 동화란 유기체가 그 주변에 있는 대상에 대해 행하는 작용이며, 조절이란 그 반대의 상태를 말한다. 즉 유기체는 단지 수동적으로 환경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기체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일정한 구조를 환경에 강요함으로써 환경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동화란 사물을 행위의 패턴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Piaget는 적응을 동화와 조절의 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Morris와 Winter는 주거규범과 현재의 주거상황과의 차이인 규범적 주거결함은 주거불만족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주거조절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방법인 주거조정행동과 소극적방법인 주거적응행동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주거조정행동이란 주거이동 또는 주거증축 및 개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주거조정행동을 하기에 제약이 클 때는 주거에 대한 가족의 규범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주거적응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주거조정 방식으로서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주자는 가능성의 범위내에서 주거공간의 사용방법의 변화나 室間의 행위 및 가구의 이동등 소극적인 대처방법과 주거공간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정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거공간이 거주자의 다양하고 변화있는 주생활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⁶⁾

주거공간의 의미부여에 대한 분석으로 도베이(Dovey)는 시간의 정체성을 통해 주거공간에 대한 의식과 시간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주거에 대한 의미부여는 과거의 거주경험과 연계되고 현재의 거주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서로 작용한 통합구조 속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식의 변화는 과거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형성되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배제하고 형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의식은 과거의 주의식과 미래의 희망이 복합되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⁷⁾

이와같이 시간적인 정체성으로서의 주거는 과거와의 연계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미래와의 연결로 확대된다.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그대로 두거나 또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꿈을 구축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이선옥, 박두용, 대도시 집합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 규모규범에 관한 연구, 1995, p.145

5)C.Noberg Schulz, 김광현 역,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1985, p.12

6)김수암, 박용환, 1992, p.153

7)김혜정, p.30

2)K.Dovey(1985), 이정희 역, 주거와 주거상실, Home and Homeless, 인간과 주거, 홍형욱 편저(1995),p.36

3)전계서, p.23

따라서 다양한 생활에 대한 강한 요구와 변화에 적극적인 부류의 거주자들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주거공간에 주생활을 맞추어가는 주거계획개념에서 탈피하여 주생활에 따라 주거공간이 융통성있게 대처해갈 수 있는 가변성을 부여한 주거계획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⁸⁾

2-3. 주거조절의 요인

그동안 우리나라 집합주택은 주택부족률을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는데 주력하여 여러 유형의 거주자들의 생활방식이나 주거생활 양식의 수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주택 내부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공공주택의 경우 다양한 평형으로 설계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내부구조는 세대구성의 특성이나 주생활양식의 상이성을 수용할 만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집합주택의 불만족 요인으로는 거주면적이 좁고 내부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며 공간의 불가변성과 경직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개조의 위험성에 따른 집합주거주택의 증개축과 용도변경을 금하는 현행주택건설 촉진법은 현실적 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개조는 좁아서 넓히거나 넓어서 교체하는 경우보다도 규범적 주거결함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주거조절을 유도하는 주거결함의 요인을 미리 분석하여 주거설계 당시부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융통성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⁹⁾

2.3.1. 가족생활 주기에 의한 요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주거욕구는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규범적 주거결함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결함을 없애기 위해 주거개조행동을 한다.

주거라는 용기 안에서 가족은 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 성장해 나간다. 각 단계는 가족형성기를 지나 성장 및 안정기를 거쳐 축소기로 진행되며, 주택공간 역시 가족의 성장에 따라 그 시기에 알맞는 규모를 요구하게 된다.

주택개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중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족생활주기이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수와 구성에 변화가 생기고 이에 의해 주택의 크기와 내부공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공간사용 실태가 달라지고, 가족들의 공간에 대한 욕구도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가 진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규범적 주거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간의 조직을 고정된 요소로 개념화하지 않는 가변성을 도입한다면, 환경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이동성을 줄이고 거주성 확보와 정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3.2. 개인의 욕구충족에 의한 요인

거주자에 적합한 주거는 거주자의 속성이나 그들의 생활 및 욕구가

반영된 생활의 질에 합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이란 사용자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 제기되어질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물리적 조건 충족은 물론, 심리적으로 안정된 영역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주거내에서 개인적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프라이버시와 영역성, 개인공간 등의 개념이 있다.

하나의 가구, 室, 건물 등은 인체측정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훌륭하게 디자인되었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것은 환경의 안락함과 질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는 프라이버시, 개인적 공간, 영역행동 등과 같은 미묘한 요인 등에 의한 것이다.

프라이버시, 개인적 공간, 영역 등에 대한 욕구는 안전, 우호관계 및 존중과 같은 다른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한편, 그 욕구가 표출되는 형태와 그 욕구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여러사회 집단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경디자인 이론의 목표 중 하나는 환경 레이아웃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방식과 또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建造환경에 대한 불만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것이 요구되는 프라이버시의 제공에 실패한 점이다. 프라이버시의 유형과 정도는 고정행동 패턴이나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개인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인적 공간'의 제공은 프라이버시 획득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써 영역행동에 대한 정의는 몇가지의 기본적 특질을 암시한다. 첫째 장소에 대한 소유권, 둘째 개인화 혹은 구역의 표시, 셋째 침입에 대한 방어의 권리, 넷째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의 충족에서 인지욕구와 미적 욕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범위의 기능에 도움을 제공한다.

알트만(Altman, 1975)은 영역을 프라이버시 획득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설명한다.¹⁰⁾

이러한 요소들에 근거를 두고 인간적이면서 자율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성, 쾌적성의 확보 등이 있고 개개인의 요구를 수렴할수 있는 방안으로 내부공간의 가변성이 주된 수단으로 작용한다.

3. 주거공간구조의 가변성

3-1. 가변성의 개념정의

만들어진 환경은 그 의미가 문화와 행위에 적합할 때 사건과 행동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에드워드 T 홀은 레이아웃 패턴을 세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고정 형태의 공간, 반고정 형태의 공간, 비형식적인 공간이 그것이다. 고정 형태의 공간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요소들 즉, 견고한 벽, 마루, 창문 및 불박이 가구 등으로 둘러 싸여진 공간으로서 고정상 공간은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8)김수암, 박용환, 1992, p:153

9)홍형욱, 가족의 주거조절 양상, 인간과 주거, 1995, pp.152-154

10)Jon Lang, 조철희, 김경준 역,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건축이론의 창조, pp.225-231

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반고정 형태의 공간이란 가구들을 그 공간 내에서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환경 중에는 그 구조를 개조하지 않고도 많은 행위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며, 여러가지 행위를 지원하도록 변화시키기 쉬운 것들이 있다. 전자가 '적응성flexibility', 후자가 '유연성mobility'이다.¹¹⁾

적응성 있는 레이아웃이란 물리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도 상이한 시간대에 여러가지의 고정 행동패턴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목적 고정형태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다.

반면 유연성 있는 레이아웃이란 여러 상이한 욕구들을 수용하도록 그 구조가 변화되기 쉬운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반고정 형태의 공간에 포함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한다. 보통 그것은 폐쇄경계나 그 자체의 내적 구조 안에서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용도의 변경, 내부공간의 배치변경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가변성은 고유의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어떤 특별한 레이아웃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특정한 행위를 더 잘 지원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데, 이것은 비용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지각된 정신적 또는 재정적 보상 때문에 보다 잘 받아들여진다. 적응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건물들이 비록 그것이 잘 설계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지라도 그것은 오래 존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¹²⁾

가변형 주택은 사회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융통성을 부여한 계획방식이다. 살다 보면 자녀의 성장으로 방이 더 필요해진다거나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으로 방이 남는 경우에 그 집에서 그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그렇다고 그 때마다 집을 뜯어 고치는 공사를 벌이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오래 전부터 소위 '가변형可變形 주택'이 주택설계자들의 꿈으로 추구되어 왔다. 가변형 주택이란 간막이 벽체 등이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주자들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방배치를 바꿀 수 있는 주택¹³⁾형식을 말한다.

조립식 간막이 벽체, 가구식 간막이 벽체 등의 개발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조립시공법이 발전함에 따라 가변형 주택이 시도되고 있으며 직종의 다양화, 취미생활의 증가로 작업실, 취미실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대응력을 갖춘 주거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가변성은 조립과 사용에 관한 시스템적 특징을 나타낸다. 가변성이란 시스템 자체(내부의 칸막이, 벽) 등의 요소로 공간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세대규모나 요구의 변화에 대한 최대한의 적응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3-2. 시간적 가변구조와 공간적 가변구조

문화는 다양하기 때문에 디자인된 환경은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된

욕구와 선호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부응한다. 즉 환경은 문화적인 특성으로서 특정한 삶의 양식으로 조화된다. 그 이유는, 디자인과 삶의 양식은 가장 혹독한 제약 아래서도 많은 대안들 중에서 선택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환경의 다양성은 문화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공환경은 집단의 상이나 개념에 밀접하게 관계되고, '형태화'라는 훨씬 더 뚜렷한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집단의 성원들이 이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상적인 환경에 대한 개념적인 모델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주거환경은 각각의 특정한 상황 안에서 주거행동과 私用化로 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주거에 있어서는 개인 거주자의 질서와 정체성을 표현하고 부여하기 위해 주거경험이 디자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인간의 결정과 선택을 구체화하고 어떤 의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디자인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련의 관계들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관계에서 환경은 질서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는다.¹⁴⁾

모든 수준-지역에서 가구배치에 이르기 까지-에서 설계와 디자인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조직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와 가치, 목표를 반영하는 서로 다른 규칙에 따른 공간의 조직으로 볼 수 있다.¹⁵⁾

사람들은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환경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영향을 주는 주체적인 존재이기를 원하며, 실내공간에서 행동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동기부여의 하나가 된다.

자유로운 행동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기능의 다양성은 공간/기능의 복합성을 통해 만족되며, 한 공간내의 기능적 복합성은 융통성 있는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가변적 건축구획, 다기능적 가구, 융통성 있는 영역 분할기법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법의 반 고정상의 구성은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며, 그 효과도 눈으로 볼 수 있다. 주공간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행위는 식사, 수면, 작업, 교제라 할 수 있는데, 하루의 활동변화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 함으로써 활동의 종류에 따라 공간의 사용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 시간대의 행위에 따라 셋팅을 바꾸는 것을 시간적 사용구분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식탁, 좌탁, 침대를 각기 다른 곳에 설치, 각각의 셋팅이 고정되어 있는 것-범용행위별로 서로 다른 거점과 셋팅을 설정하는 것-을 공간적인 구분사용이라고 표현한다. 공간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두가지 특징, 즉 시간적 구분사용과 공간적 구분사용은 각기 시간적 이용의 적극성과 공간적 이용의 적극성을 의미한다.

공간과 시간을 구조화 하는 목적은 프라이버시(상호작용, 회피, 지배 등)를 조직하고 구조화 하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타인으로부터 증가, 감소되는 자극 사

11)전게서, p.186

12)전게서, p.187

13)김진애, 21C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p.101

14)Amos Rapoport(1980), 조희금 번역, 문화의 의미와 환경디자인 Cross-cultural aspects of environmental design, 인간과 주거, 홍형욱 편저, 1995, p.43

15)전게서 p.44

이에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적정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의 분할과 연결이란 원하는 만큼의 프라이버시를 획득하는 과정인 것이다.

사람은 공간 뿐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환경 또한 시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시간 속에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시간의 조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서의 행위체계는 설계가나 환경디자이너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디자이너의 과제는 '객관적인' 환경과 '주관적인' 환경 사이에 삶의 생활양식과 행위를 지원하는 더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관계와 조화를 만드는 것이다. 각 주공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공간의 기본행위에 관한 주공간의 구분사용과 집약화 등의 정도에 따라 그 속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의 분리내용의 의미가 결정된다.

4. 가변주택의 사례

4.1. 시간적 구분사용

4.1.1. 힌지드 스페이스에 의한 가변성¹⁷⁾

스티븐 홀(Steven Holl)의 힌지드 스페이스(Hinged Space)의 개념은 벽체가 움직이는것 같은 장치이기도 하고 캐비닛의 문이나 서랍에 숨겨진 도어이기도 한 것으로, 축회전 힌지에 의해 지탱된 패널이 벽과 거기에 뚫린 개구부와 그것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도어라는 공식에서 떠나 스스로가 벽이 되기도 하고 도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콘벤셔널한 LD와 침실 등 구성의 공간은 아니다. 동시에 원룸 안에 코너를 할당하는 오픈플랜과도 다르다. 그것은 그 양쪽으로 유동하는 공간이다. 어느 때는 공간을 구획하고 또 어느 때는 그것이 개방됨으로써 최대거리인 대각선형의 시선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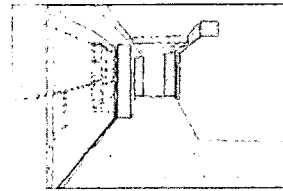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장지나 병풍이 지니고 있는 가변성과 일종의 공통성을 지니지만 장지나 병풍이 넓은 공간을 가설적으로 분할하는데 대해 힌지드 스페이스는 단단한 벽을 해체하여 공간을 연속시키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는 방향을 지니고 있다.

이 공간변형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활동이나 필요 또는 기분에까지 共振하여 자유롭게 변화되는데 그것은 시간을 척도로 하여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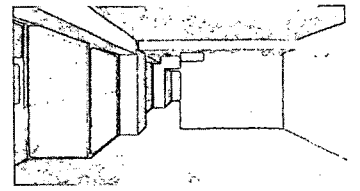
①日變形: 낮에 침실을 축소하여 리빙, 다이닝을 확장함으로써 낮과 밤의 방의 역할에 대응한다. 이것은 일종의 공간의 주고받기이다.

②季節變形: 여름과 겨울의 陽地 통풍에 대응하여 침실과 리빙, 다이닝이 뒤바뀐다. 이것은 공간과 기능의 교환이다. 여름철 리빙(그림 2-a, a')은 남서방향을 피해 후퇴하고 통풍이 확보된다. 겨울리빙(그림 2-b, b')은 남서로 그 공간을 이동연장하며 남동에서 남서에 이르는 양지를 최대한 획득한다. 이 유닛은 계절변형 이외에도 예컨대 휴파티 때에 리빙을 최대한으로 넓히기도 한다(그림 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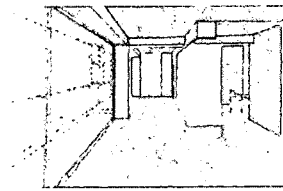
③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의 변형: 침실수를 소멸시키기도 하고 부활시키기도 하여 가족구성의 변화에 대응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공간 분할의 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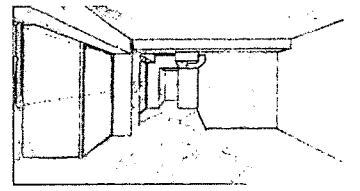
· 닫힌 힌지드 패널, 그 저쪽에 3개의 침실이 줄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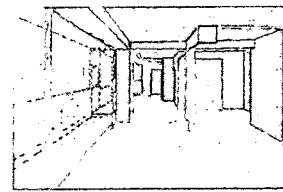
· 독립된 3개의 침실을 가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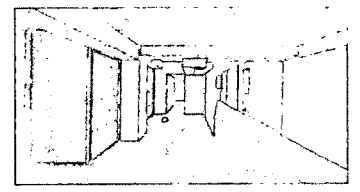
· 주간 - 바로 앞 침실 침대를 보이기 위해 리빙과 일체화한다.



· 낮에 바로 앞 침실 코너를 밀어 넣어 리빙을 개방적으로 확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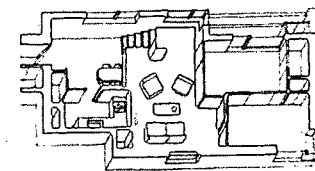
· 다시 개방된 힌지드 패널, 넓은 원룸 스페이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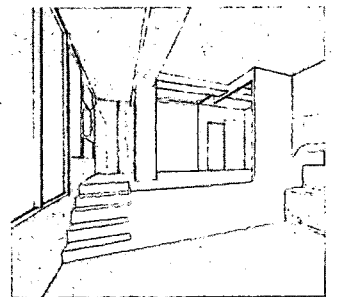
· 다시 힌지드 패널을 개방하면 원룸스페이스가 된다.

(그림 1) 일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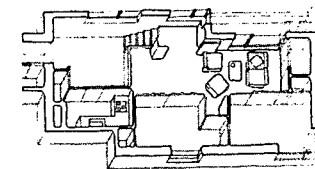
출처: 벡서스 월드, 벡서스월드 연구회, 서울: 서우문화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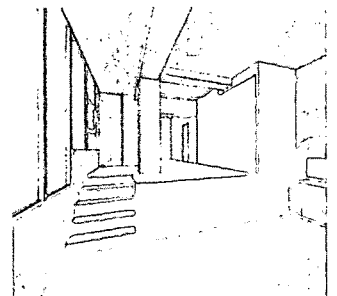
a. 여름철 리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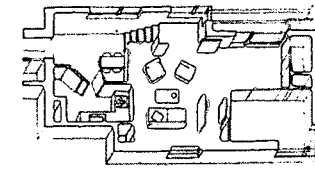
a'. 여름철 리빙



b. 겨울철 리빙



b'. 겨울철 리빙



c. 많은 인원수에 대응하는 리빙

(그림 2) 계절변형

출처: 벡서스 월드, 벡서스월드 연구회, 서울: 서우문화사, 1993

4.1.2. 칸막이의 조절에 의한 가변성

주거의식의 중요도 순위에 대한 조사를 보면, 신세대 가족형과 독신 가족형의 주거관에는 주거내 작업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신세대 가족형은 주거환경 내 작업공간에 대한 항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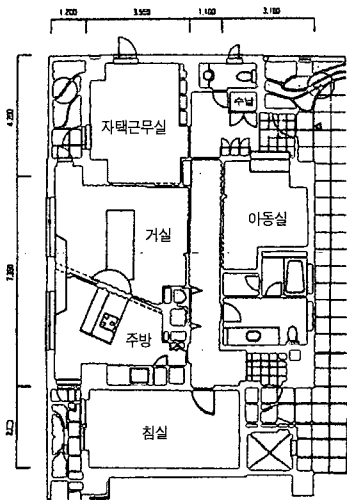
17) 벡서스월드, 벡서스월드 연구회, 1993, pp.174-177

26.45%, 독신가족형이 20.29%로 교육환경, 경제적 수단 등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김혜정, 1996))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환경계획 단계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고려는 앞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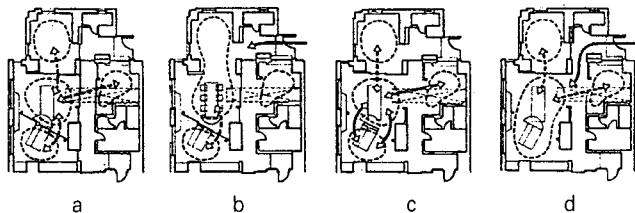
정보통신의 발달과 오피스임대료 등을 생각할 때 직종에 따라 조직에 속하면서도 재택근무를 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터와 함께 하는 집으로서, 작은공간을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형식으로 주거대상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족구성에 따라 가변성있게 계획된 공간형태를 제안한다.

그림 3에 제시된 주택은 한정된 공간을 일터로서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을 공동으로도 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방 사이의 칸막이를 대형 미서기로 하고 그것을 개폐하는 것에 의해서 각 방의 연결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주택에서 하루의 시간대에 따른 상이한 활동들을 위해 서로 다른 환경 셋팅(setting)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벽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서, 이 변화는 하루생활 시간대에 맞출 뿐 아니라 일의 형태변화, 아이의 성장 등 장기주거생활에 유연성있게 대응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 a. 각 방을 독립해서 사용하는 경우 : 방 분할의 기본이 되는 패턴이며, 이것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서 칸막이의 열림상태를 조절하면 된다.
- b. 거실을 사무실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 거실과 주방의 칸막이를 차단하면 적당한 미팅룸이 생긴다.
- c.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거실과 주방의 칸막이를 부분적으로만 차단하면 각 방끼리 연속감이 생긴다.
- d. 파티할 때 : 거실, 주방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테이블을 붙이면 큰 공간이 된다.



〈그림 3〉 일터와 함께하는 집
설계 : 建築環境研究所 吉村篤一(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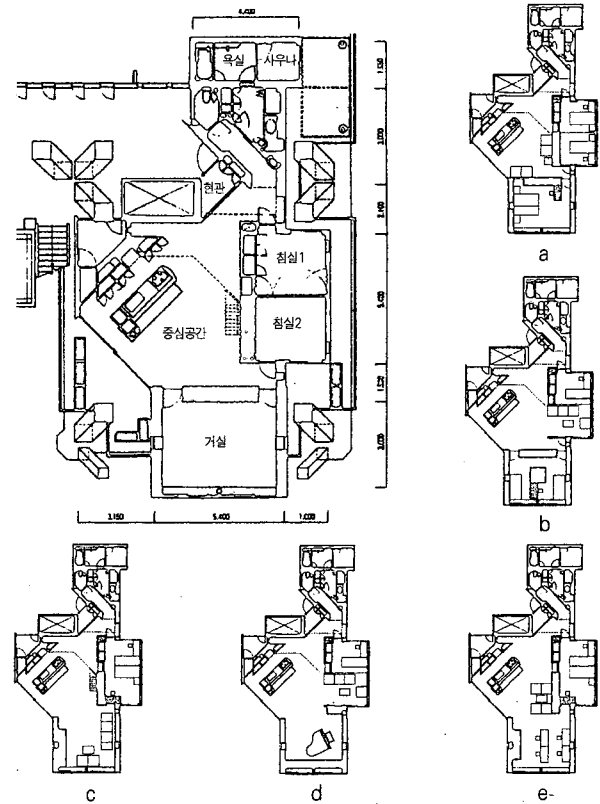
4.2. 공간적 구분사용

4.2.1. 가구배치에 의한 가변성

대부분의 가구배치는 흔히 그것이 개인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무엇을 지원하는가, 또는 이동가능한 잠재적 배열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철저한 분석없이 미리 建造된다. 홀(E. T. Hall)의 용어로는 고정형태의 공간이 된다.

주거에 있어서 평면상 변화의 요인은 획일적 환경을 탈피하고 제한

된 범위내마 거주자의 개성을 표현하기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림 4에 제시된 집은 특정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만을 지향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시점에서 21C를 전망한 체험주거용 주거이다. 이 주택은 중앙에 전체를 결합하는 중심공간을 갖고, 그 주위를 독립된 거실 zone, 식당zone, 침실zone, 욕실zone 등의 공간단위가 둘러싸는 형태로 되어있다. 가동수납유닛(그림4의 회색부분)에 의하여 자유로운 공간배치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서 여러가지 라이프스타일, 라이프 스테이지(life stage)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4〉 변화가 쉬운 집
설계 : 住宅都市整備公團關西支社(日本)

5. 결론

삶의 그릇인 주거환경은 보다 나은 삶, 보다 의미있는 삶, 보다 사람답게 사는 삶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이 요구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토지부족 문제, 도시교통의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될 제약사항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주거환경의 쾌적성 수준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주거문화의 관건이 되리라 본다.

집합주택계획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설계도면에 의존함으로써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집합주택에서 실사용의 유동성, 기능적 혼용성, 그리고 개조와 같은 변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집합주택계획의 방향이 공급위주의 규모와 유형에 의한 표준화된 주택개발에서 벗어나 거주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 있어서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향하게 될 가치, 즉 지향가치는 첫째는, 다양화이다. 이러한 다양화는 사람들 요구의 다변화, 다차원화, 복잡화에서 오는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기본욕구의 충족이 다음욕구의 충족, 보다 높은 질, 보다 높은 욕구로 발전하는데 있다. 다양화는 표준화, 규격화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개성화로 이어진다.

둘째는, 응변제화(adhocratization)이다. 응변제는 상황변화에 대처해서 조직을 고착화, 경직화시키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재조정하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방식이다. 그 특성은 가변체제이고 유연체제이다.¹⁸⁾

이같은 가치의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다양해져 가는 현실에서 주생활의 개성화 욕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판에 박힌 듯한 획일적 아파트 평면, 구조는 통용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주택이 비바람만 막아주는 '보호처' 기능에서 벗어나 생활과학적 차원에서 '총체적' 거주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질적으로 좋은 주택이란 거주자에게 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주며, 넓은 의미에서 유연성을 갖고 거주자의 삶에 따라 변경가능한 주택이다.

본 연구는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거의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모색되어야함을 기능성이라든가 쾌적성의 기준에서 뿐 아니라 보다 퍼스널한 감성에 가까운 거주 형태가 창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변성을 다루었으며, 이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주택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주거의 개념을 재검토함으로써 공간의 개성과 사는 사람의 개성이 서로 共鳴하며 사는 사람이 삶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주거 제안의 하나를 모색해 본 것이다.

11. 김진애, 우리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서울:서울포럼, 1994
12. 김수암, 박용환, 주생활 변화에 따른 주거자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2. 10., 8권 10호
13. 손세관, 박경희, 공간의 분절과 접속의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6. 4., 12권 4호
14. 김혜정, 가족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6. 11., 12권 11호
15. 이선옥, 박두용, 대도시 집합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 규모규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8., 11권 8호
16. 윤봉옥, 아파트 실내공간 가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접수 : 1997. 11. 6)

참고문헌

1. Jon Lang,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건축이론의 창조, 조철희 김경준 역, 서울: 국제도서출판 국제, 1991
2. Edward T. Hall, The Hidden Dimension: 보이지 않는 차원, 김광문 역, 서울:세진사, 1993
3. Robert Sommer, Personal Space: 개인의 공간, 서울:기문당, 1991
4. C. Noberg 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서울:태림문화사, 1985
5. C. Noberg 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주거의 개념, 이재훈 역, 서울:태림문화사, 1991
6. I. Altman, C.M. Werner(ed), Home Environments: 주거와 환경, 이경희 외 3인 공역, 서울:문운당, 1994
7. 홍형욱, 인간과 주거, 서울: 문운당, 1995
8. 넥서스 월드, 넥서스월드 연구회, 서울:서우문화사, 1993
9.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삼성건설, 1995
10. 새주택 설계연구회, 21세기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서울: 서울포럼, 1994

18) 송복, 21세기 사회와 공동체 생활 문화,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1995, pp.10-11